

제156회 한림원탁토론회

지역소재 대학 다 죽어간다

일시 : 2020년 5월 28일(목) 15:00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



PROGRAM

사회: 이재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한림원 정회원)

시간	구분	내용
15:00~15:15 (15')	개 회	인사말: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축 사: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15:15~15:55 (40')	주제발표 1	지역과 산업을 선도하는 거점국립대 및 지역대학 혁신플랫폼 구축 이성준 경북대학교 기획처장
	주제발표 2	광주·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박복재 전남대학교 교무처장
15:55~16:10 (15')	Break Time	
16:10~16:50 (40')	지정토론	
	좌 장	이재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한림원 정회원)
16:10~16:50 (40')	토론자	이민원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국가균형발전 측면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국토계획 측면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장 : 수도권 소재대학 입장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 정부 지방대학 육성방안
16:50~17:30 (40')	종합토론	질의응답
17:30	폐 회	

※ 본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인사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한민구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시어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GIST의 이재석 교수님, 경북대의 이성준 처장님, 전남대의 박복재 처장님, 광주대의 이민원 교수님, 중앙대의 마강래 교수님, 성균관대의 신완선 처장님, 교육부의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 채널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대학들은 여러모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2024년에는 대학 총 정원 50만여 명 중 12만여 명이 미달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수도권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사회 갈등을 완화시키고 지역별 특색에 맞춘 내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교육과 고용을 잇는 위치에 있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인력양성과 학·연·산 협력을 통한 지역 교육, R&D 및 산업 진흥의 '혁신 구심점'으로써 지역소재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대학교육, 지역계획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역소재 대학 다 죽어간다”라는 이름으로 오늘의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실시간 채팅을 통해 많은 질문과 제안을 주신다면 오늘의 토론회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한민구

축사



《 모두 말씀 》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우리 사회도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지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다시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서면서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책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수도권은 고도비만이고 지방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오늘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님**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역대학의 역량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한민구 원장님**과 오늘 참석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들려주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경과 및 행사의 취지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994년, 한국과학기술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위해 순수 민간단체로 시작하여, 2005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기구가 된 이래, 1000여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과학기술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과 육성 등 다음 세대 인재양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지방소멸의 문제를 지방대학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통해 그 대안을 생각해 보는 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육성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통해 **지역과 수도권**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한 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회의 노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총 23개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을 선정·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생활형SOC 복합화,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및 지역혁신체계 개편,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균형발전지표 개발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균특법이 개정되면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한전공대 설립 또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지역의 경쟁력과 혁신역량을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세부과제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지역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점을 찾아 정책에 반영하며,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자, ‘**교육분야 균형발전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성과창출을 위한 위원회 차원의 고민과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마무리 말씀 》

오늘 제시해 주시는 의견 하나하나 소중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착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28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발표자 약력

사회



이재석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부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특훈교수

前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前 중국 하얼빈 공학 대학교 객원교수

주제발표



이성준

경북대학교 기획처장

한국수의해부학회 정회원

대한수의학회 정회원

前 한국수의해부학회 회장



박복재

전남대학교 교무처장

한국무역학회 부회장

前 한국통상정보학회 회장

前 전남대학교 문화사회과학대학 학장

주제발표 1

지역과 산업을 선도하는 거점국립대 및 지역대학 혁신플랫폼 구축

...

이 성 준
경북대학교 기획처장

지역과 산업을 선도하는 거점국립대 중심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2020.5.28.

경북대학교 기획처장 이성준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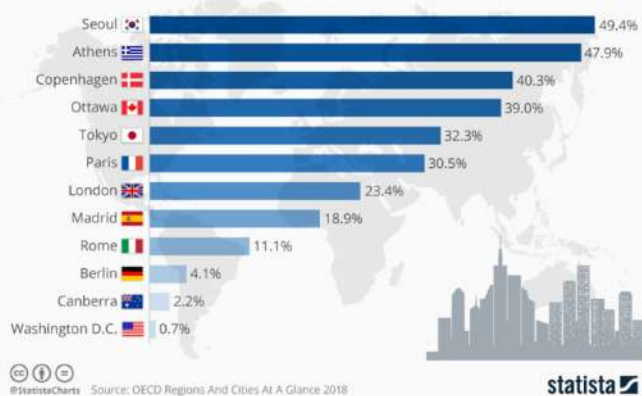
혁신방안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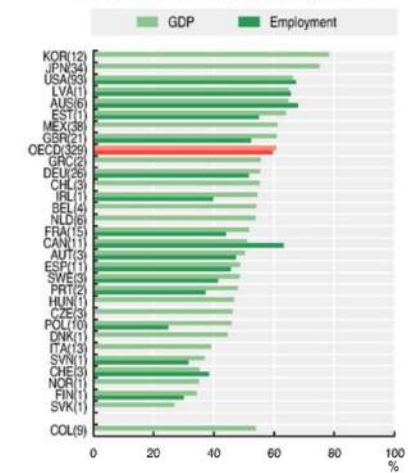
1 지역 공동화로 인한 지역사회와 산업의 위기

Where Capital Cities Have The Most Economic Clout

Contribution of selected capital cities to their countries' GDP (2016)



4.6. GDP and employment in metropolitan areas as a % of the national values, 2016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추진전략

2 지역 대학의 위기



• 2023년 우리대학 입학자원의 수능성적 백분위 성적 시뮬레이션 (대학서열화 현수준 유지, 부실대학만의 정원 감축 가정)



- ★ 대학서열화를 극복하기위한 대학의 발전 없이는 입학자원의 심각한 성적하락이 예상됨
- ★ 또한 입학자원의 변화에 따른 우리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안이 필요함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추진전략

3 국가 거점국립대의 역할은?

출처: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청안(2019.08.06)



“...학과 하나 신설하는 것도 어려운데...”

“...조건 없는 재정지원은
도대체 언제...”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추진전략

1 국가 거점 국립대 중심의 University Platform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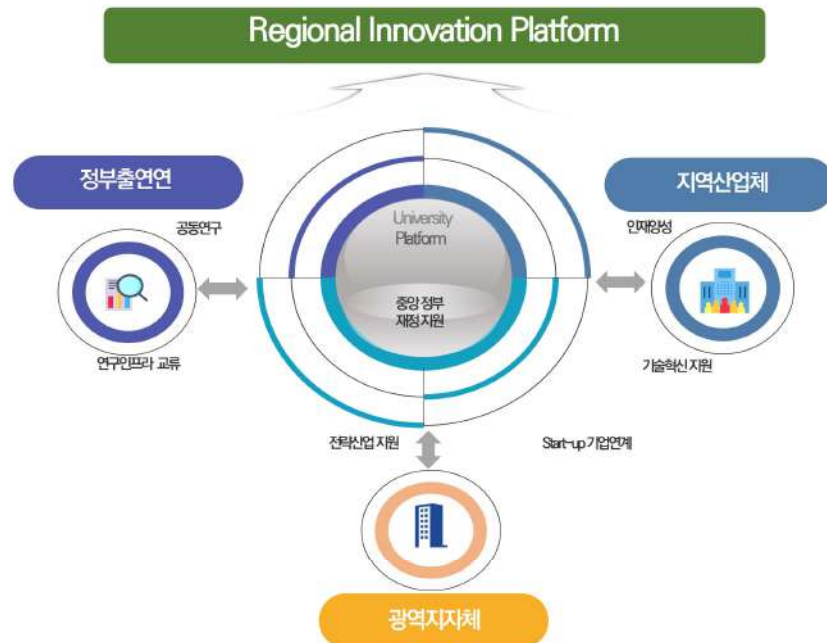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추진전략

2 지역혁신플랫폼(Regional Innovation Platform)구축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추진전략

1 재정지원 및 운영

■ 지원 전략

지역을 핵심 Keyword로 하여 국가 거점 국립대로 한정되는 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저항 해소

■ 지원 명목

지역 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대학의 공공성 역량 강화 지원

■ 지원 방법

사업화보다는 법령 제정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 재정 투자 운영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중·단기적 관점으로 단계적인 선택과 집중적 투자·운영 방안 마련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추진전략

2 연구 분권

- 정부출연연구소 및 관련 연구기관의 재배치를 통한 연구지방분권화 실현
- 전략 분야 및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대학과의 공동 연구 수행
- 지역에서 양성한 우수 지역 고등연구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재 유출 방지



주제발표 2 광주·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박 복 재
전남대학교 교무처장

Pride & Hope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광주·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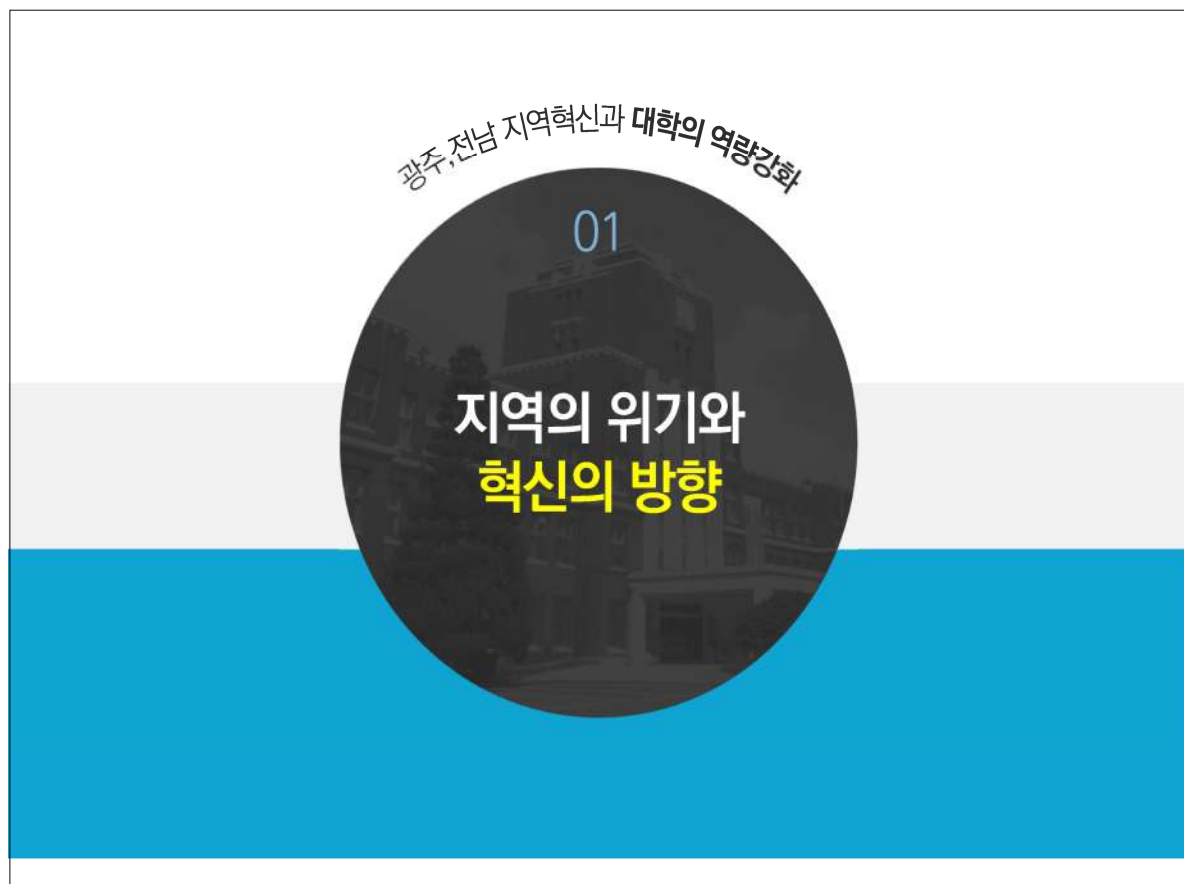
2020. 05. 28.

박 복 재 (전남대학교 교무처장)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광주,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p> <h1>CONTENTS</h1>			<p>Pride & Hope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p> <p>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p>
01	02	03	
지역의 위기와 혁신의 방향	대학중심 지역혁신 사례	지역혁신과 지역대학의 역량강화	



가. 지역의 위기 :지역소멸?

광주·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4

Pride & Hope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전남대학교
JEONNAM NATIONAL UNIVERSITY

나. 지역위기의 원인 및 대응방향

광주·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5

Pride & Hope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전남대학교
JEONNAM NATIONAL UNIVERSITY

다. 지역위기 해소방안의 혁신

광주 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6

지역위기 극복노력

중앙 중심 지역발전 방안 모색

지역경제, 산업활성화 방안 집중

지역발전 주체들의 개별 노력

지자체, 지역대학, 기업, 연구소 등

※ 발전 주체의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작용 부족
- 2010년대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모델 한계 봉착

새로운 방향 모색, 혁신

신 RIS모델 구축 및 시행

혁신

기존의 경로의존성을 벗어난
새로운 접근 시도

상호작용

지식, 기술, 자본, 학습,
정책 등 소통과 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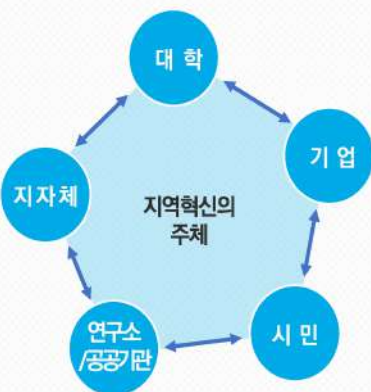
혁신주체의 새로운 역할과 가능 모색

Pride & Hope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라. 지역혁신과 대학

광주 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7



지역대학의 혁신 역량

지역사회 최대 사회적 자본 보유

- ✓ 교육 인프라 및 노하우 보유
- ✓ 전문화된 R&BD 보유
- ✓ 각 분야의 전문인력 보유

지역사회 혁신 리더

- ✓ 지역사회 필요인력 공급
- ✓ 지역사회 필요가치 제공

※ 대학은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혁신의 주체

Pride & Hope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광주,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02

대학중심 지역혁신 사례

가. 지역대학 중심 혁신정책 사례 일본 COC 사업

광주·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9

01

지역과 지역대학 위기



- ❖ 지역민 대도시로 유출
 - 인구 감소
- ❖ 지역대학 위기
 - 학령인구 감소, 우수인력 유출
- ❖ 지역경제 위기
 - 인력수급 불안
 - 지역기업의 경쟁력 약화

02

COC, COC+ 사업추진



- ❖ COC (Center of Community) 사업
 - '13-'17년 5년간
 - 지역대학, 지역재생과 활성화 거점 역할
 - 교육, 연구 통해 지역 과제 공유
 - 인재 육성, 사회공헌 수행
- ❖ COC+ (Center of Community Plus) 사업
 - '15-'19년 5년간
 - 권역별 대학의 차별적 기능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을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어
도교중심의 청년집중 해소

03

COC, COC+ 효과



- ❖ 지역대학 활성화
 - 우수인력 지역대학 진학
- ❖ 지역 구성원간 협력 체제 구축
 -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언론 협조
- ❖ 지역활력 제고
 - 인력 지역유출 감소
 - 지역사회 분위기 및 환경 개선

Pride & Hope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JEONNAM NATIONAL UNIVERSITY

나. 지역대학 중심 창업활성화 사례 핀란드 알토대

광주 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10



알토대 설립

❖ 2011년 헬싱키 공대 + 헬싱키 예술디자인대 + 헬싱키 경제대

- 노키아 본사가 위치한 헬싱키 외곽 Espoo 지역
- 창업과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술, 디자인, 경영 결합
- ※ 2013년, 세계 1위 노키아 모바일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



알토대의 교육혁신

❖ 40개 학과로 구성, 전공 무관 수업

❖ 실습과 팀 프로젝트 위주 수업

- 40% 학생이 교과과정에서 기획물 제출과 스타트업 시작
- ※ 매년 10월 13일, '실패의 날' 행사



혁신효과

❖ 핀란드 스타트업 절반 이상이 알토대 재학생 또는 졸업생

- 매년 100개 스타트업 탄생

❖ 노키아의 변신

- 통신장비업체 세계1위로...

Pride & Hope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JEONNAM NATIONAL UNIVERSITY

다. 지역대학 중심 산·학·연 협력 독일 드레스덴공대

광주 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11

01 드레스덴의 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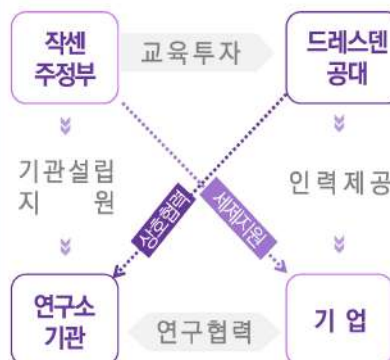
❖ 동독지역의 드레스덴

- 2차 세계대전시에 도시 90% 이상 파괴
- 통일 이후 경제위기 도시로 전락

❖ '90년대 기업연구소 설립

- '92년 막스플랑크 복잡계 연구소 설립
- '94년 지멘스 테크노파크 설립

02 산·학·연 협력



03 드레스덴의 현재

❖ 유럽의 실리콘 밸리 (Silicon Saxony)

❖ 세계적인 연구소 위치

-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라이프니치 연구소 등

❖ 1,200개 첨단과학기술 기업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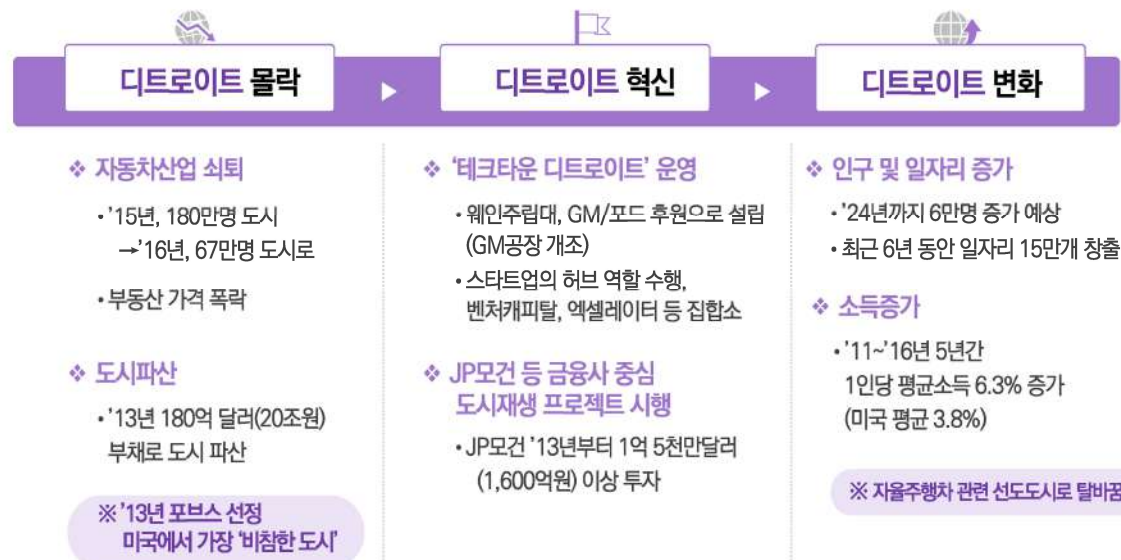
- ※ 2000년 이후, 연평균 6.8% 경제성장률 기록
- ※ 드레스덴 공대, 독일 최고 대학으로 성장

Pride & Hope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JEONNAM NATIONAL UNIVERSITY

라. 지역대학 중심 도시재생 사례 미국 디트로이트

광주·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12



Pride & Hope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광주,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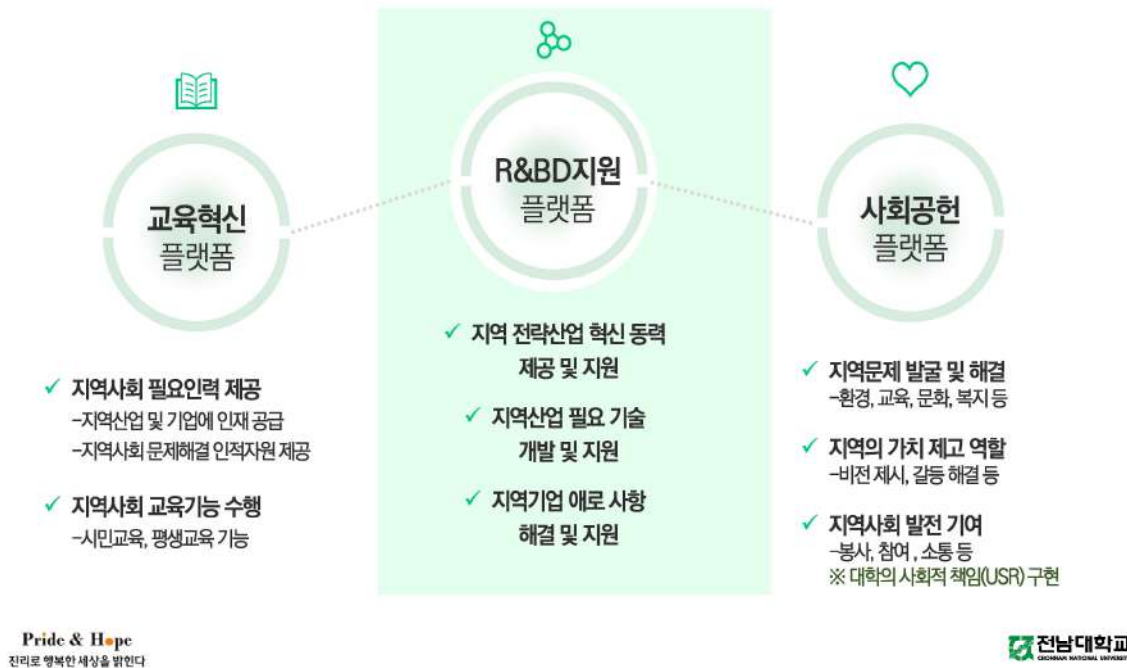
03

지역혁신과
지역대학의 역량강화

03-1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할

가.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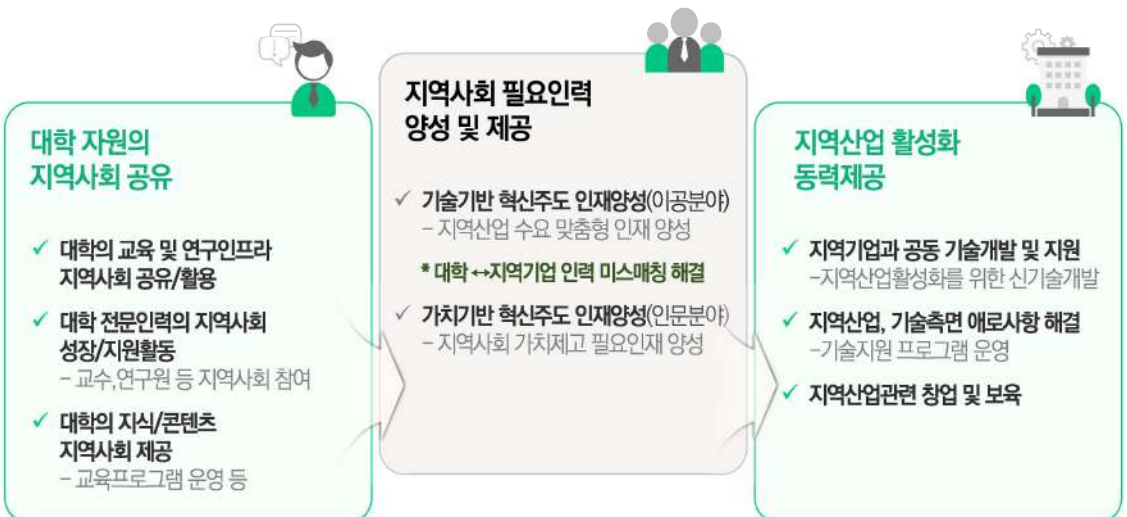
광주 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14



03-1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할

나.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대학의 기능

광주 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15



03-1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할

다. 지역산업 활성화와 대학의 역할

광주·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16

Pride & Hope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전남대학교
JEONNAM NATIONAL UNIVERSITY

03-1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할

라. 지역산업 활성화와 대학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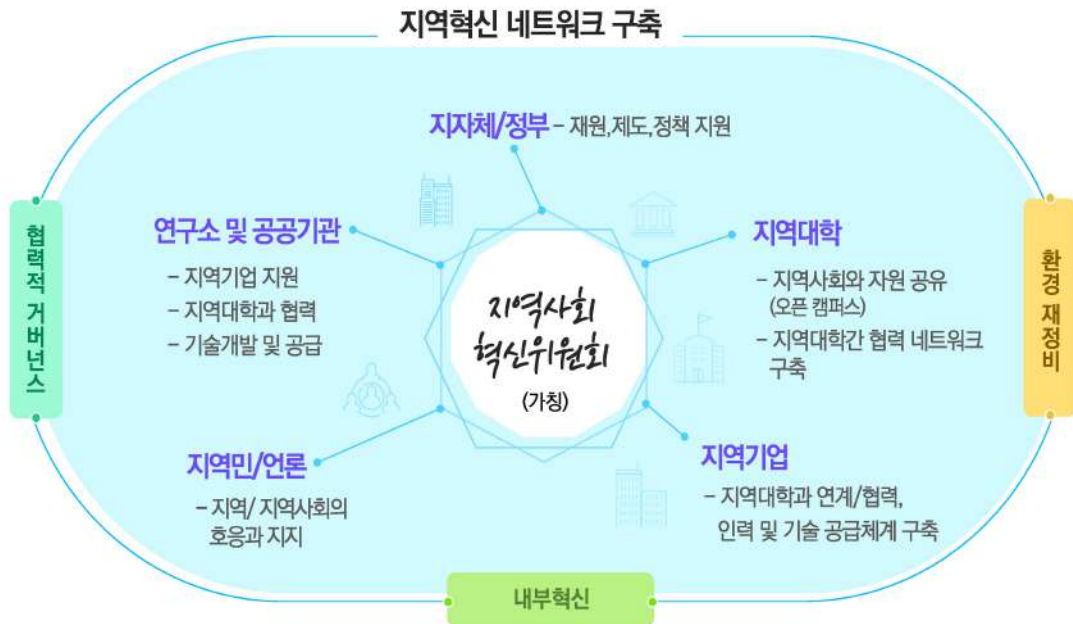
광주·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17

Pride & Hope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전남대학교
JEONNAM NATIONAL UNIVERSITY

03-1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할

마. 대학중심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광주 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18



Pride & Hope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JEONNAM NATIONAL UNIVERSITY

03-1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할

바. 대학중심 지역혁신 플랫폼 기대효과

광주 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19



Pride & Hope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JEONNAM NATIONAL UNIVERSITY

03-2 KNU-10, 거점 국립대 연합체 구상

광주·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20

가. 배경

- 거점 국립대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하여 지역대학의 집단 경쟁력 확보 및 공동의 균형발전 촉진
-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 해소 및 참여대학 간 상향평준화 도모

나. KNU-10, 거점 국립대 연합체 구상

- 거점 국립대의 연대와 협력 수준을 보다 강력한 네트워크로 끌어 올려, '파리1~13대학' 이나 미국의 주립대학과 같은 연합체 구축 방안 모색 필요
(예) 연합국립대학-전남(대학소재지), KNU-경북
- 재학기간의 절반은 참여대학 또는 해외 대학 교류
- 참여대학 독자적인 역사와 전통 보존하며 경쟁

다. KNU-10, 혁신방안과 역할

-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교육연구 세계적인 경쟁력 갖추도록 지원
- 지역중심대학과 교원양성대학들도 네트워크에 참여, 거점대학은 톱니바퀴 역할
- 연구기관의 본원이나 본원을 거점대학에 연계시켜 과학기술 연구의 지역균형 도모
- 거점 국립대학이 지역의 대학들과 조화와 협력

Pride & Hope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03-3 지역대학의 역량강화

- 전남대 SI융합대학과 첨단학과 신설

가. SI융합대학신설

광주·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21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요를 반영

국립대학 최초
융합전공 신설·운영
(18학년도부터)



로봇



지능형모빌리티



미래에너지



빅데이터금융

현재 200여명의 학생이 재적
(주전공 73명, 복수전공 128명)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양성 및
지역전략산업의 창의융합인재 양성

17번째 단과대학

SI융합대학 설립

SI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산업혁신 플랫폼 구축
('19. 9. 1.)

Pride & Hope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03-3 지역대학의 역량강화

- 전남대 시융합대학과 첨단학과 신설

광주 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22

나. 첨단학과 신설

광주 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22

- 지역산업(AI, 미래자동차 등)과 연계한 입학정원이 없는 첨단분야 융합전공을 선제적으로 운영('18.3월)
- 첨단학과 운영 역량, 자체정원 조정, 지역사회 연계 등 첨단학과 운영에 최적화 된 환경 조성

Pride & Hope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03-3 지역대학의 역량강화

- 전남대 시융합대학과 첨단학과 신설

광주 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23

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첨단 인력 양성

광주 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23

광주캠퍼스(180명)

- 인공지능학부(100명), 빅데이터융합학과(40명)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집적 단지 사업(5년, 3,939억 원) 예타 면제 사업 통과('19.2.)
- 정보보호 대학원 유차·개설('19.05.), AI 나노디그리 유차·운영('18.10.), 단과대학으로 시융합대학 신설('19.09.)
- 지능형모빌리티융합학과(40명)
- 광주형 일자리 연계를 통한 완성차 공장 설립 및 친환경 자동차 메카도시 육성
-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광주 글로벌 모터스 법인 설립('21년 예정)

Pride & Hope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03-3 지역대학의 역량강화

- 전남대 시융합대학과 첨단학과 신설

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첨단 인력 양성

광주·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24



여수캠퍼스(130명)



석유화학소재공학과(40명)

- 여수 및 전남지역의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우수 인재 양성



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40명)

- 여수지역 수산자원관련 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및 4차산업혁명기술의 발전에 따른 수산해양관련 융합산업 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 양성



헬스케어메디컬공학부(50명)

- 전남대 여수 국동캠퍼스에 권역재활병원 건립 확정 및 헬스케어·메디컬분야의 첨단 학과 운영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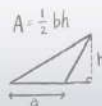
Pride & Hope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지역의 위기,
지역대학에서
답을 찾자!

감사합니다.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ide & Hope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Questions & Answers
Q&A

광주·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량강화

패널 약력

좌장



이재석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부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특훈교수

前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前 중국 하얼빈 공학 대학교 객원교수

토론자



이민원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교수

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대표

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중앙대학교 도시부동산연구소 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前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장

아시아품질협회(ANQ) 차기회장

前 기재부, 공기업경영평가단 단장

前 총리실, 정부업적평가위원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前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장

前 부산대학교 사무국장

前 교육부 정책기획관, 학교정책관

지정토론 1 국가균형발전 측면

이 민 원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균형발전 차원에서 본 지역대학 대책

이민원(광주대)

지역대학 을 둘러싼 거대한 전 환

불균형시대도 이제는 옛말

- 인구의 절대적 감소
- 지방소멸시대

4차산업시대

- 변화된 지식이 필요
- 과거와 다른 방식의 기능이 필요

교육혁명시대

- 평생교육의 부상
- 교육방식의 변화(수직=>수평)
- 교육내용의 변화(매뉴얼=>유동적 기능화)

우리의 대응 수준 체크

- 각계의 노력
 - 균형발전 추구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등 노력

우리의 대응 수준 체크

이성준교수

- 거점국립대 중심 유니버시티플랫폼
- 정부출연연구소 재배치

박복재교수

- 지역대학이 지역을 활성화시킨 사례를 소개
- 대학은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
- 대학중심 지역혁신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 거점국립대 연합체 구상

그간 노력은 적절했는가

그간의 노력은
효과적이었나?

방향은 옳았는가


그간의 노력이
타당하였는가?

임계점을 넘길 만큼
충분한 노력을 했나?

그간의 노력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대학 위기의 원인
진단을 제대로 하고
대안을 마련해왔는가?





그간의 노력은 적절하지 않았다

- 균형발전은 요원하다
 - 산학연 그 어느 것도 핵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 지역은 소멸하고 있는 중이다
 - 지방대학도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 하지만, 지역의 대학이 지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박복재 교수)

그간의 노력은 적절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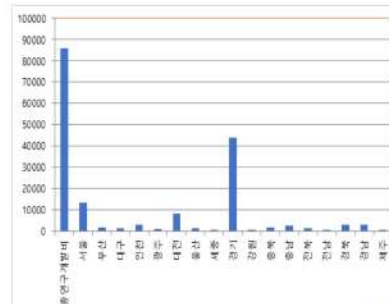
- 방향이 올바른지 의심스럽다
 - 지역 소멸을 전제로 한 대책은 없었다
 - 과거 방식의 노력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 새로운 시대의 교육기관 마련에 소홀했다
 - '국가 for 지역 for 대학'의 철학이 지배하는 관점에서는 대학이나 지역은 국가의 짐이 될 뿐이다,

그간의 노력은 적절하지 않았다

- 올바르지 않은 노력을 너무 많이 하고 올바른 노력은 너무 적게 했다
 -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대학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비수도권대학을 고의로 도태시켰다.
 - 혁신도시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면서 핵심 기업, 핵심 대학, 핵심과학기술연구기관 육성에 소홀했다.

그간의 노력은 적절하지 않았다

-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다
 -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발전정책
 - 혁신도시 발전 정책
 - 지역 연구비



노력의 성과가 지지부진한 원인은 철학의 부재에 있다

- 체계가 부족한 정책
 - 경쟁력 중시의 줄세우기 정책과 낙후지역 우대,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 혼재
- 지방대학의 사명에 대한 인식 부족
 - 대학없는 지역, 지역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인식 부족
- 사례
 - 수도권 대학에 유리한 대학 사업의 공모제
 - 수도권 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학평가후 대학지원제한제
 - 수도권에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지자체 사업 공모제

올바른 방향 설정

지방소멸, 지역대학소멸 등 지역위기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향

- 인구 감소, 지방소멸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 설정
- 사라지는 지역, 대학을 1) 받아 들일 것인가 2) 살려낼 것인가 3) 새로운 포지셔닝을 찾아야 할 것인가

지역과 지역대학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한 대처방향

- '대학 for 지역민, 지역 for 국가' 이어야 대학이 지역과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존재
- '국가 for 지역 for 대학' 이어서는 대학은 존재의미가 없음
- 지역대학과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도 소멸함을 전제로 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 지역대학은 학교를 넘어 지역발전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이성준교수, 박복재 교수)

개인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습득한 인재 배출로 방향의 전환

- 평생학습장으로 전환
- 유동성 높은 교육과정 제공

제대로된 콘텐츠 생산: 지역대학과 지역을 실제로 지역과 국가의 핵으로 만들어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소멸하는 지방에 대한 핵심대책은 소멸지역에 핵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 전국의 혁신도시에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있어야 한다(이성준교수의 정부출연연구소 재배치)
- 전국의 혁신도시에 전략산업에 특화된 대학이 있어야 한다
- 전국의 혁신도시에 선도기업이 있어야 한다
- 지역대학은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에서 '학'의 역할을 할 방안을 강구하라

핵 이외의 소멸지역에 걸맞는 국토디자인이 나와야 한다

- 식량생산기지
- 농어촌공원

지역대학의 희망

기존의 정규 대학은 점점 더 필요 없어지고 있다.

- 청소년의 꿈은 유튜버, 디제이, 아이돌, 운동선수, 공무원이다 => 대학졸업장 불필요
- 살아있는 지식을 주는 교육기관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 캠퍼스 없는 학교가 늘고 있다.
- 예: Minerva School, Ecole 42 => 정원, 수업방식, 교수 등 한국에서는 불법!

수도권의 성공한 거대대학은 이 변화에 동참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 여전히 우수한 학생이 몰려오고 있다
- 1차 혁신에서 성공한 존재는 두번째 혁신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속성이다

지역대학은 이 변화에 어쩔 수 없이 편승해야 한다.

- 현재의 플랫폼에서는 살아남지 못하니 재빨리 플랫폼을 전환하려 할 것이다
- 영세한 곳이 대다수이니 기존의 큰 투자가 없어 새로운 전환에 저항이 없다

지정토론 2

국토계획 측면

마 강 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개요:

-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재의 유출은 ‘1차 유출’과 ‘2차 유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1차 유출은 대학진학을 위한 인구이동임. 수도권 상위대학(20개 상위 종합대학)에는 매년 2만 명 정도의 비수도권출신 학생들이 이동함. 10년의 기간으로 환산하면, 비수도권지역은 20만에 달하는 지역 우수인재들의 유출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음. 이들의 90% 정도는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함
 - 2차 유출은 지역대학 졸업자들이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잡는 현상과 관련됨
-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현상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일자리와 관련됨
 - 실제로 혁신일자리들이 대도시로 중심으로 빠르게 몰리고 있음
 - 이러한 공간적 마태효과(공간의 부익부빈익빈 효과)는 비단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는 아님.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공간이 뿔뿔해 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결국, ‘공간’을 매개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 --> 양질의 대학’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바뀌고 있음
- 비수도권 대학의 회생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제적 변화’와 ‘인구·사회적 변화’의 메가트렌드를 탈 필요가 있음
 -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닌, 변화를 추동하는 흐름을 역이용해 균형적 발전을 꾀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함

1. 경제적 변화: 산업구조 변동과 대도시 집중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가 대도시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혁신 일자리의 이동에 따라 젊은 층도 대도시로 이동함
- 지역 대도시 소재 거점대학들은 산학연계를 통해 졸업생들을 머무르게 하는 정책 필요

2. 인구사회적 변화: 인구구조의 변동과 이모작 사회로의 변화

-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정해진 미래
- 향후 20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의 1/3(약1700만)에 달하는 1차&2차 베이비부머(1955-1974)가 고령자로 편입됨
- 이들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교육기능을 강화해야 함
- 앞으로는 중고령자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함

🍷 참고

-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에서는 대학연계형 고령친화마을(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이 부상하고 있음
-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단지 내 거주민들의 교육을 담당함

3. 대학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

- 대학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역할
- 졸업자들의 일자리 탐색은 대학과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함
(수도권 출신이 비수도권 대학에서 수학할 경우,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강력한 일자리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 (산학연 연계가 중요!)

4. 혁신인재가 선호하는 정주환경과 일자리 조성

- 우수인재를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데는 일자리 정책이 가장 중요하지만, 혁신인재들이 원하는 정주환경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혁신인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육공간 뿐만 아니라 볼거리, 놀거리, 먹고 마실거리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도심형의 뽁뽁한 공간을 선호함
- 대학과 일자리 인근에는 ‘고밀화’와 ‘복합화’를 콘셉트로 한 상업, 업무, 문화, 교육, 주거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야 함(전통적인 산업단지 개발 방식은 혁신인재를 끄는 데 한계)

5.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지역 대학의 위상 강화

- 노무현 정부 때 진행된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153개)는 대학과의 연계가 크게 고려되지 못했음
- 앞으로 진행될 혁신도시 시즌2는 공공기관과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함
- 특히 지역인재 할당제의 확대를 통해 지역 대학의 선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정토론 3

수도권 소재대학 입장

신 완 선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장

개요:

- **토론의 목적** : ‘지역소재 대학, 다 죽어간다’는 주제에 대한 수도권 소재 대학의 의견 제시
- **토론의 범위** : 지역대학 활성화에 대한 발제자의 정책구상, 실행방안, 추진환경 등에 대해서 토론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 제시
- **토론의 방향** : 지역소재 대학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 중장기적 미래가치와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 관점에서의 추가 아이디어를 제안

1. 지역의 인재양성 방안 [경북대 발제]에 대한 의견

-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 : 지역공동화로 지역사회와 산업의 위기의식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로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사안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채용율과 지역정착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서 세대교체가 완성되는 시점이면 공공 인프라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대응전략에 대한 토론** : 경북대에서 제시한 대응전략의 취지는 대학중심의 혁신전략으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자는 것임. 지역혁신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그러한 인재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실행 과정에서 결정될 이슈이긴 하지만 지역특성을 감안한 특성화 우선순위, 사립대학과의 공조, 글로벌 대응을 아우르는 ‘지역혁신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함. 경북지역의 산업특성이 글로벌 관점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 지역 인재의 자부심은 물론 교육, 연구, 산업으로 이어지는 대학 중심의 혁신 생태계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됨

현행 문제점 제기	경북대 발제문의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화로 지역사회와 산업 위기 - 대학서열화로 인한 입학자원의 심각한 성적 저하 - 입학자원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구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거점 국립대 중심의 University Platform 구축 - 지역혁신플랫폼(Regional Innovation Platform) 구축 -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재정투자와 법제도 개편으로 안정화 추진

2. 지역 대학의 역량강화 방안 [전남대 발제]에 대한 의견

-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 : 학령인구 감소, 지역고졸자의 수도권 진학 증가, 지역 대졸자의 수도권 취업 증가도 국가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지역발전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지역혁신 5대 주체의 한 축으로서 대학의 혁신리더십을 조명한 것이 돋보임. 선진국에서 확인된 지역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사업도 적절한 사례로서 시사임. 우리나라도 분권화 혹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전략적 구상이 10년차를 맞이하여 향후 더욱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대응전략에 대한 토론 : 광주와 전남 지역의 전략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대학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맞춤형 인재양성, 연구개발, 산학협력을 순차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지역사회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혁신 네트워크형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 거점대학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지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특히, 지역의 발전전략에 적합한 전략적 재원투자와 정원 관리를 제시하는 등 미래지향적 거점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중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선도 리더십과 재정 지원이 전제된 전략으로 판단되며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현행 문제점 제기	전남대 발제문의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진학 증가, 수도권 취업 증가로 지역사회 위기 -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근거한 지역인재 역외유출 방지 시급 - 지역발전 혁신 주체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 모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혁신 플랫폼, R&BD 플랫폼, 사회공헌 플랫폼 구축 - 지역사회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국가적 거점 국립대 연합체 구성 - AI융합대학, 첨단학과 신설을 통해 미래산업 선도 역량 확보

3. 지역소재 대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

- **고등교육의 차별적 경쟁력 지원** : 고등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과 전략적인 지원을 구분하여 교육계 생태계의 표준화 개념을 초월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기를 기대함. 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를 취업, 창업, 후속연구, 글로벌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기초를 지원하는 한편 선도 그룹은 특성화를 통해서 글로벌 TOP 10 수준의 인재그룹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집중투자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 **대입입시 시점부터 대학 서열화 해소** : 국내대학 서열화로 인해서 전공의 차별화 및 특성화 대신에 대학의 평판도가 미래 교육자원과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작용. ‘대학입시 배치표 발표’를 금지시켜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로 인해서 한국 교육의 등급화 및 서열화가 구분되는 구습을 없애야 할 것임

- **대학의 혁신 가치를 강화** : 고등교육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면 할수록 차별화된 미래가치는 줄어들고 표준화 현상이 생김. 지역사회의 문제점은 결국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미래 대학의 가치는 수요증의 관점에서 미래가치 창출, 특히 창업과 같은 미래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재편되어야 할 것임. 개별 대학의 자율적 및 전략적 포지셔닝을 구분하여 국내 투자의 중복을 피하는 한편 글로벌 차원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임

대한민국의 미래 기회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적 COVID 19 대응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국제적 경쟁력이 미래 가치를 좌우하는 시대 도래 - 우리나라는 교육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인해서 인프라 구축이 우수하고 성공사례가 많음 - 교통·통신·공급망관리 기술발전에 근거한 지리적 격차 해소 가능 - ICT 발전과 온라인/실시간 정보공유 방식에 근거한 재택근무, 재교육, 글로벌 교육시장 선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거점대학 지원을 통해서 지역균형을 감안한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필요 - 국내 자원의 배분은 균형의 관점에서 추진하고, 국제 자원의 영입 및 교류를 중시할 시점임 - 해외 유학생 유치는 물론 다양한 국가의 교육시스템과의 전략 제휴 - 특성화를 중시하여 국내 교육을 경쟁에서 협력 개념으로 전환시켜 학생성공과 미래가치 창출 가속화

한림원탁토론회는...

한림원탁토론회는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세우고, 동시에 과학기술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림원의 대표적인 정책토론행사입니다.

지난 1996년 처음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100여회에 걸쳐 초중등 과학교육, 문·이과 통합문제, 국가발전에 미치는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분야의 기본문제는 물론 정부출연연구소의 발전방안, 광우병의 진실, 방사능, 안전 방제 등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림원은 과학기술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현안문제 중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고, 과학기술 유관기관의 최고책임자들을 발제자로 초빙하여, 한림원 석학들을 비롯해 산·학·연·정의 전문가들이 심도 깊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론결과는 책자로 발간, 정부, 국회와 관련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입안자료를 제공하여 여론 형성에 기여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 한림원탁토론회 개최실적 (1996년 ~ 2020년) ■

회수	일 자	주 제	발제자
1	1996. 2. 22.	초중등 과학교육의 문제점	박승재
2	1996. 3. 20.	과학기술분야 고급인력의 수급문제	서정현
3	1996. 4. 30.	산업계의 연구개발 걸림돌은 무엇인가?	임효빈
4	1996. 5. 28.	과학기술 행정과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박우희

회수	일 자	주 제	발제자
5	1996. 7. 9.	연구개발 평가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강계원
6	1996. 10. 1.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김훈철
7	1996. 11. 4.	21세기 과학기술비전의 실현과 정치권의 역할	김인수
8	1997. 2. 25.	Made in Korea, 무엇이 문제인가?	채영복
9	1997. 4. 2.	산업기술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진주
10	1997. 6. 13.	대학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장수영
11	1997. 7. 22.	대학원 과학기술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김정욱
12	1997. 10. 7.	과학기술 행정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김광웅
13	1998. 1. 22.	IMF, 경제위기 과학기술로 극복한다.	채영복
14	1998. 3. 13.	벤처기업의 활성화 방안	김호기, 김영대, 이인규, 박금일
15	1998. 5. 29.	국민의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강창희
16	1998. 6. 26.	정보화시대의 미래와 전망	배순훈
17	1998. 9. 25.	과학기술정책과 평가제도의 문제	박익수
18	1998. 10. 28.	경제발전 원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의 역할	김상하
19	1999. 2. 12.	21세기 농정개혁의 방향과 정책과제	김성훈
20	1999. 3. 26.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	이규성
21	1999. 5. 28.	과학기술의 새천년	서정욱
22	1999. 9. 10.	신 해양시대의 해양수산정책 발전방향	정상천
23	2000. 2. 10.	21세기 환경기술발전 정책방향	김명자

회수	일 자	주 제	발제자
24	2000. 4. 14.	경제발전을 위한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역할	김각중
25	2000. 6. 16.	과학·기술발전 장기 비전	임 관
26	2000. 9. 15.	국가 표준제도의 확립	김재관
27	2000. 12. 1.	국가 정보경쟁력의 잣대: 전자정부	이상희
28	2001. 5. 4	환경위기 극복과 지속가능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 기술개발전략	박원훈, 류순호, 문길주, 오종기, 한무영, 한정상
29	2001. 7. 18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미치는 기초과학의 영향	임관, 명효철, 장수영
30	2001. 9. 21	산업계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공학교육의 방향	임관, 한송엽
31	2001. 10. 31	적조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홍승룡, 김학균
32	2001. 12. 5	광우병과 대책	김용선, 한홍율
33	2002. 7. 19	첨단기술 (BT,ET,IT,NT)의 실현을 위한 산업화 대책	한문희, 이석한, 한송엽
34	2002. 9. 13	우리나라 쌀 산업의 위기와 대응	이정환, 김동철
35	2002. 11. 1	생명윤리 - 과학 그리고 법: 발전이나 규제냐?	문신용, 이신영
36	2003. 3. 14	과학기술분야 졸업생의 전공과 직업의 연관성	조황희, 이만기
37	2003. 6. 18	국내 농축산물 검역현황과 발전방안	배상호
38	2003. 6. 27	대학과 출연연구소간 연구협력 및 분담	정명세
39	2003. 9. 26	그린에너지 기술과 발전 방향	손재익, 이재영, 홍성안
40	2004. 2. 20	미래 고령사회 대비 국가 과학기술 전략	오종남
41	2004. 10. 27	고유가시대의 원자력 이용	정근모
42	2004. 12. 7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국내 고추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박재복

회수	일 자	주 제	발제자
43	2005. 9. 30	과학기술윤리	송상용, 황경식, 김환석
44	2005. 11. 25	과학기술용어의 표준화 방안	지제근
45	2005. 12. 1	융합과학시대의 수학의 역할 및 수학교육의 방향	정근모, 최형인, 장준근
46	2005. 12. 15	해양바이오산업, 왜 중요한가?	김세권, 김동수
47	2006. 11. 7	첨단과학시대의 교과과정 개편방안	박승재
48	2006. 12. 22	과학기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	설성수
49	2007. 6. 29	선진과학기술국가 가능한가? - Blue Ocean을 중심으로	김호기
50	2007. 11. 9	우리나라 수학 및 과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도한, 이덕환
51	2008. 5. 9	태안반도 유류사고의 원인과 교훈	하재주
52	2008. 5. 8	광우병과 쇠고기의 안전성	이영순
53	2008. 6. 4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의 국내외 발생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김재홍
54	2008. 10. 8	High Risk, High Return R&D,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호기
55	2008. 11. 11	식량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이정환
56	2008. 12. 11	초중고 수학 과학교육 개선방안	홍국선
57	2008. 12. 17	우리나라 지진재해 저감 및 관리대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윤정방
58	2009. 2. 19	21세기 지식재산 비전과 실행 전략	김영민
59	2009. 3. 31	세계주요국의 나노관련 R&D 정책 및 전략분석과 우리의 대응전략	김대만
60	2009. 7. 20	국가 수자원 관리와 4대강	심명필
61	2009. 8. 28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및 정책 방향	송기찬, 전봉근

회수	일 자	주 제	발제자
62	2009. 12. 16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현구
63	2010. 3. 18	과학도시와 기초과학 진흥	김중현
64	2010. 6. 11	지방과학기술진흥의 현황과 과제	정선양
65	2011. 2. 2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초과학진흥	민동필, 이충희
66	2011. 4. 1	방사능 공포, 오해와 진실	기자회견
67	2012. 11. 30	융합과학/융합기술의 본질 및 연구방향과 국가의 지원시스템	이은규, 여인국
68	2013. 4. 17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 거는 기대와 희망	문정인
69	2013. 6. 11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좋은가?	이철호
70	2013. 7. 9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원로의 역할과 의무	이원근
71	2013. 7. 22	대학입시 문·이과 통합, 핵심쟁점과 향후 과제는?	박재현
72	2014. 1. 17	국가안보 현안과제와 첨단과학기술	송대성
73	2014. 3. 4	융합과학기술의 미래 - 인재교육이 시작이다	강남준, 이진수
74	2014. 5. 9	과학기술연구의 새 지평 젠더혁신	이혜숙, 조경숙, 이숙경
75	2014. 5. 14	남북한 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생태통일 방안은?	김호진, 이돈구
76	2014. 5. 22	창조경제와 과학기술	이공래, 정선양
77	2014. 5. 29	재해·재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은?	이원호, 윤정방
78	2014. 6. 10	벼랑 끝에 선 과학·수학 교육	정진수, 배영찬
79	2014. 6. 14	문학과 과학, 그리고 창조경제	정종명, 최진호
80	2014. 6. 25	‘DMZ세계평화공원’과 남북과학기술협력	정선양, 이영순, 강동완

회수	일 자	주 제	발제자
81	2014. 7. 24	국내 전통 발효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대안은?	신동화
82	2014. 9. 17	‘과학기술입국의 꿈’을 살리는 길은?	손경한, 안화용
83	2014. 9. 30	한국 산업의 위기와 혁신체제의 전환	이 근
84	2014. 11. 14	경제, 사회, 문화, 산업 인프라로서의 사물인터넷(IoT): 그 생태계의 실현 및 보안방안은?	김대영, 김용대
85	2014. 11. 28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의 나아갈 길은? 미래식품과 건강	권대영
86	2014. 12. 5	창발적 사고와 융합과학기술을 통한 글로벌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	하석준, 이기원
87	2015. 2. 24	구제역·AI의 상재화: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김재홍
88	2015. 4. 7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수학 수능개혁	이덕환, 권오현
89	2015. 6. 10	이공계 전문가 활용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이건우, 정영화
90	2015. 6. 25	남북 보건의료 협정과 통일 준비	신희영, 윤석준
91	2015. 7. 1	메르스 현황 및 종합대책	이종구
92	2015. 7. 3	‘정부 R&D 혁신방안’의 현황과 과제	윤현주
93	2015. 9. 14	정부 R&D예산 감축과 과학기술계의 과제	문길주
94	2015. 10. 23	사회통합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정선양, 송위진
95	2015. 11. 4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농업 발전방안	이향기, 박수철, 곽상수
96	2015. 11. 9	유전자가위 기술의 명과 암	김진수
97	2015. 11. 27	고령화사회와 건강한 삶	박상철
98	2015. 12. 23	따뜻한 사회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국내외 적정기술을 중심으로	박원훈, 윤제용
99	2016. 2. 29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산업 혁신방안은?	이동수, 송일열, 유희준

회수	일 자	주 제	발제자
100	2016. 4. 18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 50년의 도전과 대응	김도연
101	2016. 5. 19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방지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김동술, 박기홍
102	2016. 6. 22	과학기술강국, 지역 혁신에서 답을 찾다	남경필, 송종국
103	2016. 7. 6	100세 건강과 장내 미생물 과학! 어디까지 왔나?	김건수, 배진우, 성문희
104	2016. 7. 22	로봇 기술과 미래	오준호
105	2016. 8. 29	융합, 융합교육 그리고 창의적 사고	김유신
106	2016. 9. 6	분노조절장애,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나?	김재원, 허태균
107	2016. 10. 13	과학기술과 미래인류	이광형, 백종현, 전경수
108	2016. 10. 25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젠더혁신의 역할	이우일, 이혜숙
109	2016. 11. 9	과학기술과 청년(부제: 청년 일자리의 현재와 미래)	이영무, 오세정
110	2017. 3. 8	반복되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류영수, 박최규
111	2017. 4. 26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혁신체계	김승조, 민경찬
112	2017. 8. 3	유전자교정 기술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김정훈
113	2017. 8. 8	탈원전 논란에 대한 과학자들의 토론	김경만, 이은철, 박홍준
114	2017. 8. 11	새롭게 도입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바란다	정선양, 안준모
115	2017. 8. 18	ICT 패러다임을 바꿀 양자통신, 양자컴퓨터의 부상	허 준, 최병수, 김태현, 문성욱
116	2017. 8. 22	4차 산업혁명을 다시 생각한다	홍성욱, 이태억
117	2017. 9. 8	살충제 계란 사태로 본 식품안전관리 진단 및 대책	이향기, 김병훈

회수	일 자	주 제	발제자
118	2017. 11. 17	미래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입법 및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박형욱, 양승우, 최윤희
119	2017. 11. 28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업그레이드	민경찬, 김소영
120	2017. 12. 8	치매국가책임제, 과학기술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김기웅, 묵인희
121	2018. 1. 23	항생제내성 수퍼박테리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정석훈, 윤장원, 김홍빈
122	2018. 2. 6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감염의 발생원인과 환자안전 확보방안	최병민, 이재갑, 임채만, 천병철, 박은철
123	2018. 2. 27	에너지전환정책, 과학기술자 입장에서 본 성공여건	최기련, 이은철
124	2018. 4. 5	과학과 인권	조효제, 민동필, 이중원, 송세련
125	2018. 5. 2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수학교육, 이대로 좋은가?	권오남, 박형주, 박규환
126	2018. 6. 5	국가 R&D 혁신 전략 - 국가 R&D 정책 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계 의견 -	류광준, 유욱준
127	2018. 6. 12.	건강 100세를 위한 맞춤 식품 필요성과 개발 방향	박상철, 이미숙, 김경철
128	2018. 7. 4.	제1회 세종과학기술포럼	성창모, 박찬모, 이공래
129	2018. 9. 18	데이터 사이언스와 바이오 강국 코리아의 길	박태성, 윤형진, 이동수
130	2018. 11. 8	제10회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포럼(미래과학기술 오픈포럼) - 미래한국을 위한 과학기술과 정책 -	임대식, 문승현, 문 일
131	2018. 11. 23	아카데미 캐피탈리즘과 책임 있는 연구	박범순, 홍성욱
132	2018. 12. 4.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가?	이정재, 엄미정
133	2019. 2. 18.	제133회 한림원탁토론회 - 제17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수소경제의 도래와 과제	김봉석, 김민수, 김세훈
134	2019. 4. 18.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식재산권 창출과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	하홍준, 김승호, 정지선
135	2019. 5. 9.	제135회 한림원탁토론회 - 2019 세종과학기술인대회 과학기술 정책성과와 과제	이영무

회수	일 자	주 제	발제자
136	2019. 5. 22.	효과적인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방안'	곽승엽
137	2019. 6. 4.	마약청정국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마약류 사용의 실태와 대책은?	조성남, 이한덕
138	2019. 6. 28.	미세먼지의 과학적 규명을 위한 선도적 연구 전략	윤순창, 안병옥
139	2019. 8. 7.	공동 토론회 - 일본의 반도체 ·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대한 과학기술계 대응방안	박재근
140	2019. 9. 4.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식업(Agriculture and Food) 변화와 혁신정책 방향	권대영, 김종윤, 박현진
141	2019. 9. 25.	과학기술 기반 국가 리스크 거버넌스,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	고상백, 신동천, 문일, 이공래
142	2019. 9. 26.	인공지능과 함께할 미래 사회,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김진형, 홍성욱, 노영우
143	2019. 10. 17.	세포치료의 생명윤리	오일환, 이일학
144	2019. 11. 7.	과학기술 석학의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김승조, 이은규
145	2020. 2.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방안	정용석, 이재갑, 이종구
146	2020. 3. 12.	과총-한림원-연구회 공동포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중간점검 -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	김호근
147	2020. 4. 3.	의학한림원-한국과총-과학기술한림원 온라인 공동포럼: COVID-19 팬데믹 중환자진료 실제와 해결방안	-
148	2020. 4. 10.	의학한림원-한국과총-과학기술한림원 온라인 공동포럼: COVID-19 사태에 대비하는 정신건강 관련 주요 이슈 및 향후 대책	-
149	2020. 4. 17.	의학한림원-한국과총-과학기술한림원 온라인 공동포럼: COVID-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어디까지 왔나?	-
150	2020. 4. 28.	과총-과학기술한림원-공학한림원-의학한림원 온라인 공동포럼: 의학한림원-과총-과학기술한림원 온라인 공동포럼: Post COVID-19 뉴노멀, 그리고 도약의 기회	-

회수	일 자	주 제	발제자
151	2020. 5. 8.	의학한림원-과총-과학기술한림원 온라인 공동포럼: COVID-19 2차 유행에 대비한 의료시스템 재정비	-
152	2020. 5. 12.	과총-과학기술한림원-공학한림원-의학한림원 온 라인 공동포럼: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 정보 분야	-
153	2020. 5. 18.	과총-과학기술한림원-공학한림원-의학한림원 온 라인 공동포럼: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 경제·산업 분야	-
154	2020. 5. 21.	젊은 과학자가 바라보는 R&D 과제의 선정 및 평가 제도 개선 방향	김수영, 정우성
155	2020. 5. 25.	과총-과학기술한림원-공학한림원-의학한림원 온 라인 공동포럼: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 교육 분야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 school writing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제156회 한림원탁토론회

지역소재 대학 다 죽어간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을 통한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사문의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구미동) (우)13630
전화 (031)726-7900 팩스 (031)726-7909 이메일 kast@kast.or.kr